

자연농장활동*

한 승 희**
이 춘 화

- I. 자연농장 활동에 관해서
- II. 자연체험활동
- III. 농촌이해활동
- IV. 농사체험활동
- V. 농업환경보호활동

I. 자연농장활동에 관해서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인간은 죽으면 자연의 흙으로 변한다. 결국은 누구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각종의 자원을 자연 속에서 얻고 자연에 의존하여 살아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면서 자연을 극복하고 개발해 왔다. 자연과의 끊임없는 조화와 갈등의 연속적인 시간이 오늘날까지의 인간의 역사이다. 인간

은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자연속에 단순히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고, 인간이 갖는 끊임없는 욕망은 산업발달과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등을 통해 다양한 삶의 과정과 형태, 그리고 방법 등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극복해 온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농업이었다. 인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식량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합한 농업환경의 조성¹⁾과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농업 방식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제는 예전에 씨뿌리고 거두는 단순한 활동에서 벗어나 종자를 개발하고 재배기술을 연구하는 한편, 다른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최소의 투자와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농업활동이 이루어 지는 장소가 농장이다. 농장(農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농업활동의 터를 말한다. 그러나 농장은 단순히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

* 이 논문은 본 개발원의 1993년도 연구사업인 「자연농장활동」을 요약하는 것임.

**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한승희(연구위원), 이춘화(연구원)임.

은 아니다. 농장은 농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 장소일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화, 과학화로 인한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식량생산을 위한 노동의 가치를 변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생활의 삶의 정서가 깃들인 텃밭이라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것은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농업활동을 도외시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화가 가져온 조직적이고 획일화된 활동과 생활양식은 우리의 정서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이것을 탈피할 여유와 자연의 공간은 점점 우리에게 축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위치와 가치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기능으로서 농업활동의 의미와 인간 생존의 기초가 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 나아가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그 속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본 태도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의 제도와 규제속에서 자라나는 도시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유로운 자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연의 정직함과 신비로움을 일깨우는 폭넓은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연농장은 매우 실험적인 농업활동 체험의 장이다. 자연농장 활동은 농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농업의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활동 프로그램이다. 농업은 이미 자연이 아니다. 그러나 과학영농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농업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온 산업이었다. 자연농장 활동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자연과 가까워 지기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인 것이다. 인위적으로 형성된

농장속에서 자연을 느껴야 하는 역설적인 면도 숨어있지만 이것은 농장활동을 통해 자연과 숨쉬고 느끼려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의도로 전환할 수 있고, 또한 이는 자연농장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청소년 자연농장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농업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의 신성함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식량을 생산함으로써 자연의 신비로움과 정직함을 깨닫고 자연을 보존하는 철학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둘째, 농촌의 현실과 문제점,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셋째, 생산의 기쁨과 먹거리의 소중함, 노동의 신성함을 일깨워 준다. 넷째,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실천적 의지를 키워 준다. 자연농장활동의 대상청소년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활동이 갖는 특성상 평소에 농업활동을 체험하기 어려운 도시의 청소년들에게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 자연농장활동 프로그램은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목적에 따라 자연체험, 농촌이해, 농사체험, 농업환경보호의 4가지 활동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자연체험 영역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연관 형성과 자연친화에 중점을 두고, 농촌이해 영역은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촌에 가야만 체험해 볼 수 있는 농업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사체험 영역은 인위적인 농장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농산물 기르기 방법을 제시하였고, 농업환경보호 영역은 농업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은 3개 내지 5개의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 총 1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은 지도자

가 활용하는데 융통성이 있도록 인원수나 시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도자의 재량에 따라 인원수를 구성하여 단 몇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 몇달에 걸쳐 실행할 수도 있다.

각 모듈은 개요, 목표, 과정, 참고, 평가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개요는 그 모듈이 갖고 있는 의의와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목표는 그 모듈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의도를 나타낸다.
- 과정은 다시 세부활동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그 활동 모듈을 실제로 전개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설명한다.
- 참고는 그 모듈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담고 있다.
- 평가는 활동을 마친 후 활동과정을 되새겨 보는 점검판이다.

여기에서는 각 모듈의 개요와 목표, 과정만을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II. 자연체험활동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도시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연과 접하는 기회가 적어 인간이 자연 생태계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콘크리트 숲속에서 자연과 유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체험활동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위치를 알고 자연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과 인간」, 「들꽃과의 만남」, 「팬밭로 흙을」이라는 3가지 모듈을 제시하고 있다.

1. 자연과 인간

1) 개 요

자연은 수많은 생명이 이어진 고리로서 인간도 그 고리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문명이란 이름으로 자연의 균형을 깨뜨려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면 건전한 자연관을 형성해야 한다. 자연농장활동은 오랜 세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왔던 농업을 청소년들에게 수련거리로써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 목 표

강의와 토론을 통해 건전한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는 인생관을 형성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한다.

3) 과정

(1) 강의 : 자연관의 변천,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의 차이 등 여러가지 자연에 대한 사고방법과 바람직한 자연인식에 관해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다.

(2) 토론 : 조별로 나누어 강의를 듣고 느낀점을 토론하고 각자의 자연관을 발표한다. 분임토론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 토론의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한다.

2. 들꽃과의 만남

1) 개요

농작물을 경작하는 논과 밭의 주변에는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야생화들이 흩어져 자란다. 이 풀들은 크기도 작고 꽃도 작게 피지만, 은은한 색깔과 그윽한 향기, 소박한 모습으로 언제나 농사짓는 사람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준다. 논둑 밭둑에

피어있는 들꽃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들꽃을 찾아 관찰하고 길러봄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깝게 느껴보도록 한다.

3) 과정

(1) 들꽃 관찰 : 논밭 주변에서 주로 자라는 들꽃의 종류와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2) 야생식물 가꾸기 : 논밭 주변에서 들꽃을 찾아 관찰하고, 도시에도 그런 풀들이 있는지 찾아 본다. 들꽃의 종자를 채취하여 화단이나 화분에서 길러 본다.

3. 맨발로 흙을

1) 개요

흙은 인간 생존 근원이다. 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인간은 흙을 이용해 식량을 얻어 왔다. 그래서 흔히 인간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즈음 도시의 청소년들은 콘크리트 숲에 둘러싸여 흙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갈 뿐 아니라 흙을 밟아볼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흙 위에서 할 수 있는 놀이활동과 흙에 관한 조사활동을 통해 자연을 좀 더 가까이 몸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흙 위에서 할 수 있는 놀이활동과 흙에 관한 조사활동을 통해 자연과의 친밀감을 높이도록 한다.

3) 과정

(1) 흙 밟기 : 흙 위에 맨발로 서서 강강수월래

나 짹짹기 등을 하며 자유롭게 뛰어 논다.

(2) 흙 위에 앉기 : 흙 위에 주저 앉아 공기놀이와 땅재먹기를 한다.

(3) 발자국 남기기 : 흙 위에 물을 뿌려 발자국이나 손자국을 찍어 본다.

(4) 흙 속의 생물조사 : 흙 속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조사한다.

III. 농촌이해활동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생산을 해야 한다. 생산은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인류가 처음 생산을 시작한 곳은 농촌이었다. 그러나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농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혼향도 현상으로 농촌에는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의 농촌은 더욱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농촌이해활동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이 농촌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먹거리의 생산처임을 알고, 우리 농촌과 농민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우리 몸엔 우리 농산물」, 「신나는 농악놀이」라는 3가지 모듈을 제시하고 있다.

1. 작은 힘이나마

1) 개요

우리의 농촌은 노동인구의 감소와 기계화 부진으로 심각한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청소년들의 농촌 봉사활동은 농촌의 이러한 현실과 문제점을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봉사의 내용은 청소년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나, 여기에서는 집중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모내기과 벼의 수확, 그리고 잔손질이 많이 가는 과일나무의 과실관리를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2) 목표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이라는 어려운 현실과 문제점을 알고, 작은 힘이나마 보탬으로써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

3) 과정

(1) 봉사활동의 준비: 시기적으로 적합한 농촌 봉사의 종류를 조사한다. 일손돕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를 섭외한다.

(2) 봉사활동의 실시: 약속된 날짜에 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일손돕기가 끝나면 활동장소를 정리하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2.우리 몸엔 우리 농산물

1) 개요

최근들어 많은 양의 농산물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수입농산물은 운반과정에서의 변질을 막기 위해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농산물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우리 농촌의 생활기반을 뿌리 채 흔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수입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인형극과 사진전 활동을 통해 수입농산물의 문제점과 농촌의 현실을 알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에 앞장서도록 한다.

3) 과정

(1) 수입농산물의 문제점 알아보기: 농산물 수입이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형극을 구성해 발표한다.

(2) 우리 농산물 사랑하기: 우리 농산물과 농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시회를 갖는다.

3. 신나는 농악놀이

1) 개요

농악은 우리나라 농촌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서 농민들이 주로 즐긴다 하여 흔히 농악이라 부르지만, 풍물, 풍장, 두레 등의 이름도 사용하기도 한다. 농악은 농촌의 공동체 생활과 밀접한 생활예술이므로 농민의 생활 속에 깊숙히 뿌리박혀 마을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농악은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여기에서는 여러 유형의 농악 중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부 내용만을 선별해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하였다. 간단하게나마 농악을 배우고 실습해 봄으로써 농민들의 정서와 농촌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농촌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농악 중에서 악기 다루는 법과 농요부르기, 소고춤을 배우고, 세가지를 합하여 판굿을 벌려 봄으로써 농촌의 공동체 문화를 체험해 보도록 한다.

3) 과정

(1) 농악기다루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농악에 사용되는 네가지 타악기인 장고, 북, 징, 팽과 리를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

(2) 농요부르기: 농사지를 때 부르는 노래로 농악놀이에 삽입되는 농요를 불러 본다.

(3) 소고춤추기: 농악놀이의 흥을 더하는 소고춤으로 놀이를 꾸며 본다.

(4) 판굿벌리기: 이상에서 배운 세가지 내용을 응용하여 판굿을 벌인다.

IV. 농사체험활동

오늘날 경제개발과 성장이 가져다 준 물질적인 풍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기쁨을 모른 채 소비의 주체로만 머물게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농산물을 직접 기르고 수확하여 맛흘려 일하는 기쁨과 노동의 신성함을 느끼고, 농작물이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자연의 순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사체험활동 영역에서는 간단한 농작물의 재배방법을 배우고, 가축의 사육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채소밭 가꾸기», 「꽃밭 가꾸기», 「밭이 없어도», 「동물농장에서의 하루», 「농사 캠프」라는 5가지 모듈을 제시하고 있다.

1. 채소밭 가꾸기

1) 개요

최근들어 신선하고 오염없는 채소에 대한 도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협이나 관광농원 등에서는 도시인들에게 일정기간 채소밭을 임대해 주고 있다. 청소년들도 이러한 장소나 학교 뒷마당 등을 이용해 채소원에 작물을 재배해 보도록 한다. 채소밭 가꾸기를 통해 우리 농촌 특유의 텃밭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땅 흘려 일한 뒤의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2) 목표

채소밭의 일반적인 관리법을 배워 직접 채소를

길러보고, 자신이 가꾼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을 느껴보도록 한다.

3) 과정

(1) 계획세우기: 채소밭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연중 재배계획을 세운다.

(2) 땅고르기: 채소를 기르기 전에 먼저 밭을 갈고 퇴비를 넣어 지력을 좋게 한 후에 씨뿌리기에 적합한 이랑을 만든다.

(3) 씨뿌리기와 묘심기: 기르고자 하는 채소의 씨를 뿌리거나 묘를 구입해 심는다.

(4) 채소 손질하기: 채소가 잘 자라도록 솥아내기, 결눈따내기, 김매기, 복주기, 추비주기 등의 손질을 해준다.

(5) 거두기: 채소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면 거둬 들인다.

2. 꽃밭 가꾸기

1) 개요

화훼원에는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농산물재배 활동이다. 아주 좁은 공간이라도 채송화나 봉숭아 같은 소박한 꽃들로 꽃밭을 꾸밀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기르기 쉬운 한해살이 화초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인 무궁화를 가꾸어 보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목표

한해살이 화초와 무궁화로 꽃밭을 꾸미고 가꾸어 봄으로써 화훼원예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3) 과정

(1) 한해살이 화초가꾸기: 꽃밭의 규모에 적합

한 화초의 종류를 결정한다. 화초를 기르기 전에 먼저 땅을 갈고, 꽃밭 가장자리를 정리한다. 기르 고자 하는 화초의 씨를 뿌리거나 묘를 구입해 심 고, 잘 자라도록 돌본다.

(2) 나라꽃 가꾸기 : 주변에 심어져 있는 무궁 화를 가지치기를 통해 모양을 다듬어 주고, 잘라 낸 가지로는 꺾꽂이를 해 번식시킨다.

3. 밭이 없어도

1) 개요

도시의 청소년들은 채소나 화초를 길러보고 싶 어도 현실적으로 채소밭이나 꽃밭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자 할 때는 관광 농원이나 임대 농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방법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가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다. 그러나 밭이 없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자그마한 농장을 꾸밀 수 있다. 버리는 상자나 쓰지 않는 그릇 등을 이용해 간단하게 채 소나 화초를 길러보도록 한다.

2) 목표

밭이 없는 경우에도 마음만 먹으면 채소나 화 초를 길러 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구체 적인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한다.

3) 과정

(1) 계획세우기 : 어떤 종류의 채소나 화초를 기를 것인지 재배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이 용해 기를 것인지 결정한다.

(2) 흙을 담아 가꾸기 : 화분이나 버리는 상자 등을 이용해 채소나 화초를 기르는 방법을 배우 고 실습한다.

(3) 물 만으로 가꾸기 : 쓰지 않는 그릇이나 바 구니를 이용해 간단하게 나물이나 채소를 기르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4. 동물농장에서의 하루

1) 개요

우리나라 농업은 예로부터 주곡농업 위주였기 때문에 축산은 부업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식생활 개선으로 축산물의 수요가 늘면서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축산업의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농사체 형의 하나로 축산업도 배농을 수가 없다. 그러나 청소년 자연농장활동의 주요대상이 도시청소년이 기 때문에 가축을 직접 길러보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처지이므로 대신 축산농장을 견학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목표

축산농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농가에서 주로 기르는 가축과 가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축산기술 과 시설 등을 살펴본다.

3) 과정

(1) 준비 : 견학활동을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 을 토론하고, 견학할 농장을 섭외한다.

(2) 견학 : 농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는다. 농장의 축산기술과 시설 등을 돌아보고, 가축이나 가금을 관찰한다.

5. 농사 캠프

1) 개요

청소년기에 야외에서 보낸 몇일 동안의 캠프활 동은 오랜 시간동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 농사 캠프는 관광농원과 같이 청소년 활동이 가 능한 농장의 야영지나 민박을 이용해 단기간의 농사체험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2박 3일

의 짧은 시간이지만 자연농장 활동을 집중적으로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2) 목표

농장에서의 캠프활동을 통해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농사체험을 해보고, 야외에서의 집단생활을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3) 과정

(1) 준비 : 캠프가 가능한 농장을 알아보고, 활동할 날짜와 기간, 교통편을 결정한다.

(2) 실시 : 정해진 날짜에 농장으로 가 캠프 활동을 시작한다. 정해 놓은 일정에 따라 활동을 진행한다. 일정을 마치고 캠프장소를 정리한 후에 귀가한다.

4) 일정표

시간	날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06 : 00 }			• 기상 및 명상 • 체조 • 아침식사	• 기상 및 명상 • 체조 • 아침식사
08 : 00 }		• 집합 및 출발 • 이동	• 농사체험활동 • 신체활동	• 평가 및 폐회식 • 견학활동 — 축산농장 방문
12 : 00 }		• 농장 도착		
12 : 00 }		• 점심식사 • 개회식 및 오리엔테이션	• 점심식사 • 휴식	• 점심식사 • 출발
14 : 00 }		• 강의와 토론 — 자연과 인간 • 관찰활동 — 들꽃 관찰 — 지렁이 관찰 — 거미 관찰	• 강의와 토론 — 더불어 사는 길 • 농촌알기활동	• 이동 • 도착 및 해산
18 : 00 }		• 저녁식사 • 휴식	• 저녁식사 • 휴식	
20 : 00 }				
20 : 00 }		• 전통문화활동 — 농악놀이 • 친교활동 • 취침 • 지도자 회의	• 발표회 — 인형극 발표 — 사물놀이발표 — 농요 발표 — 소고춤 발표 • 캠프파이어 • 취침 • 지도자 회의	
24 : 00				

V. 농업환경보호활동

인간의 무절제한 자연개발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왔다. 농업분야에서도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에는 유해성분이 남아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농업환경의 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환경보호활동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환경보호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길」, 「받은 만큼 돌려주기」, 「예쁜 지렁이 귀여운 거미」라는 3가지 모듈을 제시하고 있다.

1. 더불어 사는 길

1) 개요

화학농업은 생산성의 증대라는 면에서는 큰 효과를 보았으나,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으로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에는 유해성분이 남아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농업환경 오염의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서의 유기농업의 필요성에 관해 생각해 보고, 환경보호는 곧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도록 한다.

2) 목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농업의 환경효과와 유기농업에 관해 생각해 보고,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한다.

3) 과정

(1) 강의 :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과 그 중 부정적인 영향의 방지책으로서 유기농업의 필요성에 관해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다.

(2) 토론 : 조별로 나누어 강의를 듣고 느낀점을 토론한다.

(3) 농장 생태계 상상도 그리기 : 토론을 바탕으로 농장의 생태계를 그림으로 그려본다. 전체가 모여 조별토론의 내용을 발표하고, 준비한 그림을 게시한 후에 종합토론을 한다.

2. 받은만큼 돌려주기

1) 개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싱싱한 농산물의 수확을 위해서도 균형있는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퇴비를 듬뿍 넣어 영양이 풍부해진 땅에서는 병해충이 적어 농약없이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제 퇴비를 만들어 우리가 흙으로부터 농산물을 수확한 만큼 다시 양분을 돌려주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환경보호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목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해 봄으로써 농업환경 오염에 관해 생각해 보고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실천적 의지를 키워주도록 한다.

3) 과정

(1) 재료모으기 : 버리는 음식찌꺼기나 잡초 등을 모아 퇴비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한다.

(2) 쌓기 : 퇴비의 재료를 알맞은 비율로 쌓아 놓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3) 뒤집기 : 퇴비의 발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뒤집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3. 예쁜 지렁이 귀여운 거미

1) 개요

우리의 농토는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으로 점차 황폐해지고 있다. 따라서 퇴비와 천적을 이용하는 유기농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퇴비가 식물의 영양분이 되려면 지렁이와 같은 토양생물과 여러가지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충의 천적도 고등동물에서부터 곤충, 거미, 원생동물까지 여러가지 생물이 있다.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생물중에서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점차 사라지고 있는 지렁이와 거미의 생태를 관찰해 보도록 한다. 징그럽게 보이던 모습이 예쁘고 귀엽게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2) 목표

지렁이와 거미의 생태를 조사하고 관찰함으로써 이들 생물이 농업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3) 과정

(1) 준비 : 지렁이와 거미의 생물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이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다. 지렁이와 거미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본다.

(2) 지렁이 관찰 : 화학비료의 역할을 대신하는 지렁이의 생태를 관찰한다.

(3) 거미 관찰 : 농약의 역할을 대신해 해충을 없애 주는 거미의 생태를 관찰한다.

참 고 문 헌

- 강수기. 1993. “한국 농업의 환경효과”, 「농업과 환경」, 농민신문사.
- 강영희, 신영오. 1993. 「토양·식물영양·비료학」, 집현사.
- 고재경. 1992. 「환경문제의 농업적 해결」, 서원.
- 김명자. 1991.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동아출판사.
- 김정수 외 2인. 1990. 「전통음악 학습지도법」, 세광음악출판사.
- 김종무. 1992. 「미래의 농장」, 유한문화사.
- 김태정. 1992. 「집에서 기르는 야생화」, 대원사.
- 농촌진흥청. 1992. 「우수교육농장안내」, 농촌진흥청.
- 농협중앙회. 1993. 「내고향 텃밭로」, 농협중앙회.
- 백영관. 1992. 「즐거운 원예생활」, 전원문화사.
- 백운하. 1992. 「해충학」, 향문사.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1981. 「농업계 고등학교 과수원에 교사용지 도서」, 문교부.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1981. 「농업계 고등학교 채소원에 교사용지 도서」, 문교부.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1992. 「농업계 고등학교 원예기초실습」, 교육부.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1993. 「농업계 고등학교 수도작 경영실습」, 교육부.
-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년도미상. 「생활원예」,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 성진근. 1992. 「농의 가치와 역할」, 을유문화사.
- 세계스카우트연맹·세계자연보호기금. 1993.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역, 「지구를 되살리는 소년들」, 김영사.
- 심우성. 1989. 「남사당패 연구」, 동문선.
- 야하타도시오. 1992. 김종흡 역, 「신비롭고 고마운 토양권」, 전파과학사.
- 오성출판사 편집부. 1992. 「무농약 채소재배」, 오성출판사.
- 오장현 외 2인. 1990. 「민속놀이 지도자료」, 삼일각.
- 오호성. 1993. “농업과 환경문제의 인식”, 「농업과 환경」, 농민신문사.
- 우리교육. 1992. “인형극으로 해보는 환경교육”, 「우리교육 10월호」, 우리교육.
- 유달영, 염도의. 1987. 「나라꽃 무궁화」, 학원사.
- 육종룡 외 9인. 1992. 「축산학개론」, 향문사.
- 이광석. 1993. “환경과 농산물 무역”, 「농업과 환경」, 농민신문사.
- 이소라. 1986. 「한국의 농요 제1집」, 현암사.
- 이은웅. 1986. 「수도작」, 향문사.
- 이호철. 1991. 「벼랑 위의 우리 농업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길사.
- 이효삼 외 4인. 1992. 「농촌교회 이렇게 할 일이 많습디다」, 한울.
- 장원석. 1993. 「농촌을 살리는 길 52가지」, 정암문화사.
- 전국 시도교육연구원. 1975. 「민속놀이 지도자료」, 전국 시도교육연구원.
- 전원문화사 편집부. 1992. 「수경재배입문」, 전원문화사.
- 조성우. 1992. 「농민 이야기주머니」, 녹두.
- 최병철. 1992. 「환경보전과 유기농업」, 한국유기농업보급회.
- 크리스찬 아카데미. 1989. 「후기산업시대의 세계 공동체」- 환경, 우석.
- 한국교육개발원. 1992. 「보람찬 환경탐구」- 국민학교 5·6학년용,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전통문화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
- 후쿠오카마사노부. 1990. 최성현·시오다교오꼬 역, 「생명의 농업」, 정신세계사.
- 国土緑化推進委員会. 1989. 緑に親しむ 体験学習指導の手引, 国土緑化推進委員会.
- 育てる会. 1992. 育てる 285号, 育てる会.
- 高根常昭. 1993. 地域の特色を生かした農業教育, 産業教育 2月号(第43巻 第2号), 文部省.
- Katz, A.. 1986. Naturewatch,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